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토크

2022 01





2022 새해 인사장

임인년 壬寅年 희망 나눔

안녕하십니까.

안산시장,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것은 찾아가는 것이며,

희망은 나누는 것이지요.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마음을 열고

함께 만드는 세상, 함께 만드는 미래,

희망과 손잡고,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설날 아침에

안산시장 올림

안산톡톡 Vol. 497

발행일 2021년 12월 23일

발행인 안산시장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 대변인

e-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Fax 031.481.3224

E-mail ansannews@korea.kr



f @ansancity3 안산시청

ig @ansancity cityansan ansancity

YouTube 안산시유투브 ansancity

표지 이야기(안산시립부곡어린이집 새해 인사)



안산시립부곡어린이집 7세반 원아들이 새해를 맞아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다. 최근 시립부곡어린이집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 중 하나인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친환경적 건축물 리모델링으로, 안산시는 관내 11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해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촬영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다.

사진 안산시

목차

- 04 **특집①**
새해 안산에서 달라지는 제도
- 06 **특집②**
안산시 청년몰 2호점, 다농마트 청년몰
- 08 **생생도시 안산**
안산시 소식
- 10 **기획① 안산 땅이름 이야기**
단원구 신길동
- 12 **기획② 안산에 가보고 싶다**
경기도 최초 '람사르 습지'
- 14 **기획③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
기업탐방_(주)유니테크
- 16 **살맛나는 안산_명예기자가 간다**
'올 겨울방학엔 박물관에서 놀자' 등
- 21 **출동! SNS 시민기자**
생생 마을기자단, 학생기자단, SNS시민기자단
- 22 **이달의 인물**
조민국 안산 그리너스FC 감독
- 24 **의회소식**
안산시의회
- 26 **우리동네**
상록구와 단원구
- 28 **신년특집**
안산시 범띠 시민들 여기 모여라!
- 30 **참여마당**
독자투고, 나비잡
- 32 **알림마당**
이달의 책, 문화소식

안산톡톡을 매월 모바일로 받아보는 방법 ① 카카오톡 친구 '안산시청' 검색 ② 카카오톡 채널 추가버튼 클릭 ③ 완료



새해 안산에서 바뀌는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안산에서 바뀌는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새롭게 추진하거나 바뀌는 내용 등을 소개한다.

아동급식카드 'G드림카드' 전면 도입



안산시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한 아동급식카드 'G드림카드'를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도입한다. 2021년 11월 기준 학생 1천550여 명에게 도시락을 지원한 안산시는 지난 10여 년간 도시락 배달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직접 조리한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아동급식을 운영해 왔다. 최근 실시한 아동급식 선호도 조사에서 지원 대상자의 80% 이상이 'G드림카드' 전환을 희망한다고 답해 아동급식 지원 방식을

변경기로 했다. 새롭게 도입하는 'G드림카드'는 별도 가맹점 체결 없이 BC카드가 연계된 경기도 내 모든 음식점과 편의점에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아동별 지원받는 식수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2021년 11월 기준 경기도 내 이천, 포천, 양평 등 3개 시·군을 제외한 28개 지자체에서 'G드림카드'로 결식아동을 돕고 있다.

안산시 아동권리과(031-481-2269)

저소득층 아동 자립 돕는 디딤씨앗통장 지원금 '확대'

2022년 정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따라 디딤씨앗통장 매칭 지원금을 확대한다. 2021년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5만원 입금 시 정부가 5만원을 지원했던 '1대1' 매칭 비율에서 2022년부터는 5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1대2'로 매칭 비율이 늘어났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 아동에게 월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월 3만원을 넣으면 1년 후 108만원을, 월 5만원을 넣으면 1년 후 18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는 해지할 수 없어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주거마련 지원 등 오직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안산시 아동권리과(031-369-1524)

민간 공유자전거 ‘타조(TAZO)’ 도입



안산시는 2022년 4월 중으로 대부도를 포함한 안산시 전역에 무인대여 민간 공유자전거 ‘타조(TAZO)’를 도입한다. 2021년 연말 운영이 종료되는 안산시 공유자전거 ‘페달로’를 대체해 시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타조(TAZO)’ 도입 대수는 1천대이며 민간 공유자전거가 배치되지 않은 대부도를 포함해 안산시 전역에서 운영한다. 자전거는 대여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은 20분에 500원으로 시작해 10분당 200원씩 추가된다. 한 달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월정기권은 1만원이다. 다만 월정기권이라도 기

본 시간 20분이 넘어가면 10분당 200원이 추가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에서 ‘타조(TAZO)’ 앱을 설치하고 위치를 파악한 뒤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탑승하면 된다. 앞으로 ‘타조(TAZO)’는 현재 운행하는 ‘카카오 T 바이크’와 함께 시민의 근거리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5)

상하수도요금 복지서비스 확대

안산시는 2022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복지 감면을 확대 시행해 2만 2백여 가구가 연간 9억 6천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되어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이 대폭 증가한다. 3자녀 가정의 경우 월 감면금액이 기존 1천원에서 6천70원으로 6배, 4자녀 가정은 기존 1천원에서 8천100원으로 8배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수급자와 장애인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 신청자는 변경된 혜택이 자동 적용되므로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안산시는 이번 감면 확대 조치로 복지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ARS 납부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365일 전화 한 통으로 상하수도요금 실시간 조회·납부 및 자동납부 신청(신용카드, 은행계좌)을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2021년 3월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구축해 카드납부를 위해 매월 은행 등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바 있다.

안산시 수도행정과(031-481-3677) / 안산시 하수과(031-481-2458)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앞으로는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를 2m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또 건물 안에 있는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잡도록 의무화한다.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방침은 오는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50만원이 부과된다.



안산시 농업정책과(031-481-2352)

2m 이하



안산, ‘청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부상 전국 유일 청년몰 2호점 ‘다농마트 청년몰’ 개소

2021년 11월 문을 연 다농마트 청년몰이 새해를 맞아 더욱 분주하다.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이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난 이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부터 공방까지 모두 즐길 수 있다. 신안코아 청년몰에 이은 두 번째 청년몰로 문을 연 다농마트 청년몰을 통해 안산시는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떠올랐다.

상생 공간으로 거듭난 다농마트 청년몰

다농마트 청년몰이 청년창업공간이자 전통시장과 청년 상인을 잇는 상생 공간으로 자리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특히 다농마트 청년몰은 2021년 3월 문을 연 신안코아 청년몰에 이은 안산시 청년몰 2호점으로서 안산시는 2개 청년몰(40개 점

포)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기초지자체가 됐다.

다농마트 청년몰은 2019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복합 청년몰 지원 공모사업’ 선정 이후 국비 15억 원, 시비 15억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입해 1년 5개월간 리모델링을 거쳐 다농마트 전통시장 3층 공간에 문을 열었다.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다농마트는 지하 4층·지상 10층, 연면적 3만 3천711㎡ 건축물로 1992년 12월 개설했다. 의류점과 다양한 공산품 판매점, 커피·제과점 등 390여 점포가 입주해 있다. 상가형 시장으로 안산시 최대 상권을 형성하기도 했으나 대형마트 입점, 온라인 판매 활성화, 경기 침체 등으로 상가 3~4층 일부에 공실이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다농마트 청년몰 개소로 방문객 유입 증가 효과를 누리는 등 전통시장 분위기도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다. 다농마트 청년몰은 소비자에게 친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안산시 최고 상권이자 대표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양한 즐길 거리 가득한 창업 공간

‘다농마트 청년몰’은 1천14㎡ 면적에 음식점 9곳, 디저트 8곳, 공방 3곳 등 모두 20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음식점은 전통 한식부터 돈가스, 스테이크, 파스타 등 양식과 분식은 물론 다양한 종류의 디저트도 준비되어 있어 방문객의 발걸음을 사로잡는다. 여기에 레진공예, 뜨개 등 체험이 가능한 공방도 입점하면서 시민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도 제공한다.

안산시는 청년창업을 위한 청년몰 외에도 청년큐브(50개 점포), Station-G(13개 점포), Station-A(5개 점포) 등을 운영 중이다. 모두 108개에 달하는 청년창업공간을 보유한 것이다. 이로써 안산시는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다농마트 청년몰은 최대 5년까지인 운영 기간을 종료하면 경력단절 여성과 시니어 계층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 경영 미숙에 따른 소상공인 폐업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몰에 입점한 청년상인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으로서 청년몰 운영에 최적의 입지인 다농마트가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들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 성공적 창업기반 조성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소: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1
문의: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2695)



사할린 동포·자녀 등 ‘안산’ 새 보금자리에 영구 정착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했다가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했던 사할린 동포와 가족 206명이 안산에 정착했다. 이들은 올해 시행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 영구 정착이 이뤄졌다. 기존에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에 의해 사할린 동포 1세와 배우자, 장애 자녀만 귀국, 정착할 수 있었다. 특별법 시행으로 귀국 및 정착 대상이 사할린 동포 직계비속 1명

과 배우자까지로 확대되면서 사할린 동포 4명과 사할린 동포 가족 202명이 안산에 정착하게 됐다.

이번 영주귀국은 지난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이어졌으며 영주귀국 대상자들은 상록구 사동 고향마을을 비롯해 신길동, 반월동, 초지동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입주했다. 영주귀국은 그동안 가족과 생이별해야 했던 사할린 동포 어르신들이 자녀와 함께 고국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딸과 함께 입국한 A(여·90세) 어르신은 “혼자서는 아무리 그리워도 못 왔을 텐데 딸과 함께 고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2878)

상록구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최종 선정… 2027년까지 4천억 원 투입

안산시는 상록구 사동 일원 축구장 7개 면적(5만㎡)에 2027년까지 국비 250억 원, 도비 5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2천97억 원 등 모두 4천90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성장 기업혁신 공공지원허브’ 거점으로 만들 계획이다. 안산시는 지난 12월 16일 국무총리 주재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상록구 사동 일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이 주도해 주거·상업·산업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신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함께 신규 도입된 제도다. 주요 사업으로 ▲안산 R&D 첨단혁신 성장센터 ▲미래차 전환거점센터 ▲생활SOC 복합시설 ▲LH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900호)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시는 생산유발 효과 6천97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천809억 원, 직·간접 고용유발 효과 3천214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산시 도시재생과(031-481-2499)

2030 청년과 소통하는 ‘안산청년 Want탁 회의’ 개최



안산시는 2022년 ‘청년정책과’ 신설을 앞두고 다양한 청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2월 1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2021년 안산청년 Want탁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청년 눈높이에서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 스마트허브 노동자, 신혼부부, 청년장애인, 청년창업자, 다문화청년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1, 2부로 나눠 진행됐으며 2부는 10개 의제 테이블에서 퍼실리테이터 안내에 따라 청년이 안산시에 바라고 필요로 하는 의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청년장애인을 위한 인식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복지 ▲대학생 통학 및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 노선 개선 ▲권역별 청년 공간 확보 ▲사회초년생 공단 노동자를 위한 정책 및 노동 관련 정보제공 등이 의제로 발굴되어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안산시는 향후 청년정책에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산시 기획예산과(031-481-3909)

안산시 ‘2021년도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전달

안산시는 지난 12월 16일 (주)블랙큐브와 풍원정밀(주), (주)한국치과임플란트연구소 등 기업에 2021년 한 해 안산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을 인증하는 현판과 인증서를 전달했다.

안산시는 2015년부터 민간기업 고용 확대 유도 등을 위해 매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해 ‘안산시 고용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우수기업 선발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안산시에 2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8~22일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았다.

안산시는 자격 요건인 최근 1년간 고용증가인원 2명 이상, 고용증가율 5% 이상인 기업 중 일자리 성장성, 기업 경영 건전성 등 기준에 따라 서류와 현장조사, 심사 등을 거쳐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했다.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지원 시 추가 금리 및 가점을 부여한다. 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업 및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혜택도 주어진다.

안산시 일자리정책과(031-481-2279)





신길동(新吉洞)은 법정동 이름이며 행정동도 신길동이다. 조선시대에는 안산군(安山郡) 와리면(瓦里面) 신각리(新角里)·적길리(赤吉里)·선곡리(船谷里)·성내리(城內里)였다가 1912년 2월 5일 이들을 통합해 신길리(新吉里)로 개칭했다.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1914년 3월 1일 안산군이 시흥군(始興郡)에 통합되었으며 4월 1일 와리면이 군자면(君子面)으로 통합, 개칭되어 시흥군 군자면 신길리로 되었다. 그 후 법률 제3798호에 따라 1986년 1월 1일 안산시(安山市) 신길동(新吉洞)이 되었다. 신길동은 신각리(新角里)의 ‘신(新)’자와 적길리(赤吉里)의 ‘길(吉)’자를 취한 것으로 신도시개발로 폐동 후에는 공장들이 들어섰고 조선시대 임금께 댄쟁이를 진상하던 ‘사옹원분원(司饔院分院)’ 터와 조선 초기에 설치된 ‘무응고리 봉화 터’ 등도 보존되지 못하고 유실되었다. 위 사진은 신길천사유적공원으로 안산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현우 향토사 전문위원(안산문화원)



능길마을 출토 연자방아

능길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 출산 후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 묘를 안산군 와리면 와리산(현 단원구 목내동 능안)에 쓴 후 능의 이름을 '소릉(昭陵)'이라 하였다. 1454년(즉위 2년) 단종은 어머니의 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안산에 행차했는데 가는 길목에 '적길리(赤吉里)'라는 마을 능으로 가는 길에 있다고 하여 그때부터 마을 이름을 '능길'이라고 불렀다. '소릉'은 세조가 임금이 된 후 파헤쳐 이장이 됐다가 중종 때 복권되어 동구릉에 있는 현릉의 문종 임금 옆에 안장되었다.

셋뿔(新角)

능길과 시흥시 거모동 도일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소의 뿔처럼 생겼다 하여 '셋뿔'이라 불렀다. 조선시대에는 '신각리(新角里)'라 칭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신흥학교(新興學校)가 설립되면서 새 학문을 익혀 깨달아야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로 깨달을 '각(覺)'자를 써서 '신각(新覺)'으로 바꿨다고 한다. '셋뿔'은 조선시대에는 염전으로 유명했으며 신도시개발 전 군자면 관내에서는 호(戶)수가 가장 많았다.



사옹원 분원지

만해

한국전쟁 직후 황해도 웅진·연백 등지 난민들이 정착하면서 취락이 이뤄졌다. 마을 이름 유래는 바닷물이 들어오면 지대가 낮아 물이 가득 차다 하여 '만해(滿海)'라 칭했다는 설과 다른 하나는 마을 남쪽에 사옹원 분원이 있어 만인(萬人)이 모였는데 간척지 공사로 바닷물이 끊기자 농경지로 변모되어 '만인해들'이라 했으며 이것이 후대로 내려오면서 '만해(萬海)'로 불린다는 설이 있다.



함계열차 원곡역 급수탑 그림

원곡역(元谷驛)

옛 원곡역(신길동 910번지 일대) 주변에 위치한 마을로 1937년 경동철도주식회사에 의해 수인선이 부설될 때 원곡역사(元谷驛舍)를 현재 안산역 자리에 건립하려다가 경사가 저 현재 신길동 지역에 건립했다고 한다. 이곳은 본래 방죽(防築)이 있고 지대가 높아 작은뱅골 뒷산의 흙을 손수레에 실어다 매립해 역사를 건립했다. 마을 또한 원곡역이 영업을 개시하면서 함께 번성하기 시작했었다.



이경희 선생 묘역

작은뱅골

큰뱅골과 원곡역 사이에 자리 잡은 마을로 큰뱅골에 살던 전의이씨 후손들이 분가하면서부터 촌락이 형성되었다. 작은뱅골에는 안산시 향토문화재 제21호 이경희(李慶禧) 선생 묘역이 있다.

큰뱅골

작은뱅골 북쪽 마을로 조선시대에 바닷물이 이곳까지 이르러 배가 닿았다 하여 '배안골(船谷)'이라 칭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부터 '뱅골'로 변을 됐다고 한다. '전의이씨 족보'에는 '이곡(梨谷)'으로 기록돼있다. '배(船)'자 대신에 같은 음인 '배(梨)'자를 썼다.

조선 중기 양주목사를 역임한 이경희(李慶禧)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 전의이씨(全義李氏)가 대성을 이뤘다고 한다. 큰 뱅골과 작은 뱅골 사이에 있는 도당재에서 매년 산신제를 지내오다 어느 해에 산신제를 지낸 달에 마을에서 소를 잃자 그 다음 해부터 산신제를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안산’ 매력에 빠지다 : 완사르 승지

2022년 안산은 가보고 싶은 도시로서 매력 발산에 나선다. '2020~2021 안산 방문의 해'에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부도를 중심으로 힐링할 수 있는 안산9경(景)뿐 아니라 안산 곳곳 숨어 있는 보물 같은 장소를 시리즈로 소개한다. 볼거리 가득한 안산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대부도 갯벌, 생태관광의 시작...경기도 최초 '람사르 습지'

대부도 갯벌은 지난 2018년 경기도 최초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 18개국 대표자들이 모여 체결한 국제습지보호조약으로 1975년 12월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101번째로 가입했다. 협약을 통해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또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대부도 갯벌은 자연 상태의 다양한 염생식물 군락지와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 보호대상 해양생물 등 104종의 대형 저서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과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붉은어깨도요, 검은머리물떼새, 큰뒷부리도요 등 멸종위기종들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바닷새들의 이동 경로이자 취식지로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 (주)유니테크

안산시는 2021년 6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안산기업통합지원단'을 공식 출범하며 기업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섰다. '기업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신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안산시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반월국가산업단지(안산스마트허브)의 주요 기업들을 소개한다.

Q. (주)유니테크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달라

A. (주)유니테크는 1999년 안산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화학소재 기업으로 국내 1~5공장과 3개의 영업사무소, 4개의 해외법인, 국내·외 3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며 글로벌 진출과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이성호 회장은 현재 안산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Q. (주)유니테크의 주력 사업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주)유니테크는 자동차 및 선박용 접착제분야 화학소재전문기업입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자동차용 및 LNG 선박용 접착제가 있으며 자동차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폭스바겐에, 선박용의 경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대우조선해양과 일본 이마바리조선소, 중국 강남조선소에 공급 중입니다. 원천 기술 응용을 통한 섬유강화플라스틱, 그린에너지 분야 신규 사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유니테크는 기업의 연혁 등을 소개하기 사내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다.

Q. 안산에서 기업 경영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A. 안산스마트허브는 공장의 집단적인 수용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공원 속의 공업단지로 개발된 점과 공단 내 입주 기업 간 협업 및 다양한 특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이곳에서 기업 경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 기업과 산업 성장을 위해

안산시가 더욱 힘써야 하는 점은 무엇인가

A.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실행 요구수준에서 벗어나 선진국들의 실사 의무화 등 제도화 움직임에 따라 ESG 이슈 기업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필요조건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입주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ESG 경영 도입이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시에서 이런 지원을 조금 더 해주신다면 안산스마트허브가 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글로벌 화학소재 전문 기업’ 비전을 목표로 기술 중심, 인간 중심의 경영을 통해 기존 자동차와 조선 분야를 넘어서는 ‘전기·전자’, ‘그린 모빌리티’, ‘우주항공’ 등 국가 산업의 기둥이 되는 분야에 가치를 실현하는 세계적인 종합 화학소재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Q. 안산시민에게 한마디

A.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함께 했기에 이겨 낼 수 있었고 웃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일상을 되찾아 함께 웃을 수 있길 바라며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하세요. 2022년 흑호의 해, 호랑이처럼 기운 넘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 직원을 위한 사내 카페테리아 모습



올 겨울방학엔 박물관에서 놀자!

올 겨울방학은 코로나19로 여행도 맘대로 갈 수 없고
집에만 있어야 해서 답답하다. 이 답답함을 뒤로하고
가족, 친구와 함께 안산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코로나19로 다양한 체험은 어렵지만 해설이
함께하는 안산시 박물관들을 소개한다.

김영미 명예기자 flowerym@hanmail.net

수암마을전시관

옛 안산의 중심지였던 수암동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모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2018년 수암경로당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전시관 안의 창문을 통해
수암봉과 안산객사, 관아지터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전시관 옆에는 수령 400년 이상의 보호수가 자리하고 있
다. 역사와 문화는 이야기가 되고 한 시대를 품어줬던 옛
고을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3길 34
문의 : 수암마을전시관(031-481-2794)

성호박물관

2002년 개관한 성호박물관은 조선 후기 실학자 성호 이
익의 생애와 업적, 저서들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성호 이
익이 40년간 써놓은 성호사설과 아버지인 매산 이하진이
남긴 10권의 서첩 천금물전(보물 제1673호) 등을 볼 수 있
다. 이익의 형 옥동 이서가 연주하던 300년 된 거문고, 옥
동금도 감상할 수 있다. 성호박물관 건너편에는 이익 선
생의 묘 등도 볼 수 있다.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131
문의 : 성호박물관(031-481-2574)



성호박물관

단원미술관

단원미술관은 단원 김홍도의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지
역 미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다양한 기획 전시
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현재 단원미술관에서는 안산시 소장 영인본
대체전시 '표암과 단원'을 관람할 수 있다. 미국에서 68년
만에 안산 품으로 돌아온 공원춘효도와 여동빈도 등 김홍
도와 그의 스승 강세황의 작품을 한 번에 만날 수 있다.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총장로 422
문의 : 단원미술관(031-481-0505)



단원미술관

안산향토사박물관

안산문화원 1층에 자리한 안산 향토사 전문 공립박물관이다. 안산 역사와 민속, 예술, 인물 등을 널리 알리고자 개관했다. 현재 안산 지역 문화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자료부터 안산 관련 고문서, 근현대 민속품에 이르는 유물 2천여 점을 수집, 소장 중이다. 주요 소장품으로는 조선시대 갈모, 근대 계란 망태, 씨앗 망태, 막신 등이 있으며 안산 역사와 민속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고 있다. 야외전시장에서는 물레방아, 중부지방 전통 서민초가, 현덕왕후 폐능지 출토 유물 등도 볼 수 있다.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석호로 144
문의 : 안산문화원(031-415-0041)

안산어촌민속박물관

점차 사라져가는 어민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 전시하기 위해 건립한 박물관이다. 총 3개 상설전시실을 운영 중이며 경기만과 대부도를 중심으로 한 갯벌 생태 환경과 어업 문화, 대부도 지역 유물 및 생활 문화 등을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안에는 커다란 수족관이 있어 까치상어, 줄돔, 농어 등을 볼 수 있고 대부광산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도 전시하는 등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대부항길로 7
문의 : 안산어촌민속박물관(032-886-2912)

최용신기념관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고 교육 활동을 통해 애국심을 심어준 독립운동가 최용신의 삶과 업적을 널리 알리고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건립됐다. 최용신은 일제강점기 샘골 마을(본오동)에서 농촌계몽운동을 펼치며 샘골 강습소를 지어 낮에는 어린이를, 밤에는 어른을 위한 한글 교육을 지원했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1935)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다. 기념관은 최용신과 당시 샘골 마을(본오동) 사람들이 함께 세운 샘골 강습소 자리에 복원됐다.

주소 : 안산시 상록구 샘골서길 64
문의 : 최용신기념관(031-481-3040)



최용신기념관

별망어촌문화관

별망마을은 한국전쟁 이후 황해도, 평안북도 등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정착해 형성된 마을이었다. 별망마을은 1970년대까지 다양한 어업 활동을 통해 마을이 번성했으나 1970년대 후반 반월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폐동됐다. 별망어촌문화관은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사라진 별망마을을 기억하고자 만든 공간이다. 별망마을의 번성과 쇠퇴, 어업방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주소 :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553
문의 : 별망어촌문화관(031-434-9071)



별망어촌문화관

초등교사가 알려주는 알찬 겨울방학



곧 기다리던 겨울방학이 시작된다. 겨울방학은 한 학년을 마무리하고 새학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공부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주현 교사(선일초)는 “부모님의 관심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부쩍 자라게 하는 만큼 이번 겨울방학은 아이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조언을 토대로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정리했다.

저학년은?

- 생활계획표를 만들어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한다. 가령 ‘늦잠 자지 않기’, ‘규칙적으로 식사하기’ 등 간단한 목표를 세워 실천함으로써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
- ‘일주일에 한권 이상 독서하기’를 실천하되 아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에 맞춰 관련 책을 골라 함께 읽고 관련 장소도 방문하면 좋다.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자.
- 박물관, 공방 등을 방문해 복공, 도자기 만들기, 유리 공예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해보자. 체험 후 느낀점 등을 공유하면서 간단하게 기록도 해보자.
- 공원 산책이나 놀이기구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 꾸준히 체력을 기르도록 하자. 안산에는 공원이 많으니 날씨가 좋은 날 아이와 함께 외출을 해보자.
- 가족,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대부도, 탄도항, 별빛마을 등 안산에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많다.

고학년은?

- 5학년부터 역사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까운 역사유적지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선부동 고인돌 유적지, 신길선사유적공원, 안산향토사박물관, 안산읍성, 안산객사, 최용신기념관, 사세충렬문 등을 방문하길 추천한다.
- 과목별로 수학은 난이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배운 내용을 꾸준히 복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
- 또 서술형 평가를 시작하므로 지문을 정확히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풀이 과정을 간결한 문장으로 서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책을 읽은 뒤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출처 : 선일초등학교(031-487-4123)
권소희 명예기자 estateksh@naver.com



"우린 '간부', 땀 수 없는 사이"

에어프라이어와 찰떡궁합인 '겨울 간식'

겨울이 되면 빠짐없이 등장했던 길거리 간식들이 요새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코로나19 사태와 물가 상승 등의 이유일 것이다. 그래도 걱정할 것 없다. 에어프라이어를 활용하면 집에서도 맛있는 겨울 간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 고구마나 밤, 계란, 닭고기, 옥수수 통조림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 보자.



🍴 군고구마와 고구마스틱

에어프라이어로 가장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것이 군고구마다. 고구마를 200도에서 10분간 굽되 젓가락으로 찔러보며 굽기를 조절한다. 고구마스틱은 고구마 껍질을 깎고 길게 썰어서 10분 정도 찬물에 담가두어 전분을 없앤다. 키친타월로 물기를 잘 닦은 뒤 에어프라이어 트레이에 펼쳐서 180도에서 7분, 뒤집어서 5분간 굽는다.

🍴 군밤

밤은 소금물에 30분 이상 담그고 깨끗하게 닦아 준비한다. 밤의 동그란 밑 부분에 십자 모양으로 깊게 칼집을 내준 뒤 180도에서 10분, 뒤집어서 10분 구우면 껍질이 터진 군밤이 된다.

🍴 계란빵

핫케이크 가루에 계란, 우유를 섞어 반죽을 만든다. 종이컵에 기름을 바른 뒤 만든 반죽을 컵의 1/3 정도 붓고 계란 1개를 깨어 넣는다. 포크를 이용해 노른자를 터뜨린다. 에어프라이어에 종이컵을 넣어 160도에서 15분간 구우면 된다.



🍴 닭날개 구이

신선한 닭 날개를 우유에 10분 정도 재워 누린내를 제거한 뒤 키친타월로 물기를 없앤다. 간장, 다진 마늘, 맛술, 후추로 양념을 만들어 닭날개에 골고루 버무린다. 180도에서 30분간 조리하면서 10분마다 한 번씩 골고루 섞으면 맛있는 간장 양념 닭날개 구이가 완성된다.

🍴 콘치즈

통조림 옥수수의 물기를 빼고 마요네즈와 설탕, 소금 약간을 골고루 섞어 종이 포일에 깎아 에어프라이어 안에 넣고 170도에서 약 8분간 굽는다. 그 위에 모차렐라 치즈를 원하는 만큼 올린 후 5분간 더 굽고 파슬리 가루를 뿌려 완성한다.

🍴 떡꼬치

떡볶이 떡이 냉동이라면 물에 미리 넣어둔다. 떡이 말랑해지면 나무 꼬치에 5개씩 꽂아 180도에서 10분 정도 굽고 바삭한 식감이 좋다면 조금 더 굽는다. 케첩, 고추장, 올리브오일, 다진 마늘, 물을 넣어 만든 양념을 떡 위에 골고루 바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꼬치가 된다.

권소희 명예기자 estateksh@naver.com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코로나19 시대, 노동자들 한자리에 모여 ‘정책제안’

코로나19를 겪으며 이전과 비교해 노동환경에 큰 변화를 겪은 대표 직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듣고 지원 대책 등을 제안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안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은 지난 12월 18일 오후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안산시 코로나19 노동환경 변화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지만 목소리를 낼 창구가 없었던 10개 직종 종사자들이 모였다.

이날 토론회는 1부 직종별 참가자 토론회와 2부 결과보고 및 직종별 토론 결과발표 등을 진행했다. 1부에서는 직종별 종사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인 한 참가자는 주말 대체인력 문제를 지적하며 “요양보호사 3명이 40명을 케어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인인 한 참가자는 “공연을 위해 1년 내내 연습하며 프로그램 준비를 다했지만 코로나19로 전면 취소됐다. 공연 준비에 들어간 비용과 노력을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어 소득이 가장 시급한 문제다”고 강조했다. 프리랜서 참가자는 “학교 수업은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 연장이 보장되지 않으며 강의 평가가 높게 나와도 3년이 넘으면 ‘고용 기회 확대’를 이유로 기관에서 강사를 바꾼다”며 고용 불안정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배달 라이더인 참가자는 “배달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노동이기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늘었으면 좋겠다”며 “눈이나 비가 올 때 아파트 지상 출입 못하게 하는 것이 힘든데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바닥 재질 때문에 무조건 사고가 나기 때문”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콜센터 상담원인 한 참가자는 “경력이 오래되어도 악성 민원을 받으면 감정정리가 어려워서 곧바로 다른 콜을 받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경비노동자인 참가자는

“3개월 계약서를 쓰고 사직서를 쓰는 게 가장 큰 고충”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가자들은 직종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며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철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은 “노동자들이 임금과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복지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조직을 지원하고 지역노동복지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로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정책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안산시 노동환경 변화 실태조사를 1~2차에 걸쳐 진행해왔다. 2021년 상반기에는 6개(요양보호사·어린이집교사·택배 및 물류센터 노동자·프리랜서 강사·문화예술인) 부문 노동자 27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1~12월에는 ‘직종별 수다모임’을 열어 배달 라이더, 콜센터 상담원, 택배기사, 경비 노동자 등 10개 직종 노동자가 참여해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출동! SNS 시민기자

마을을 대표하는

시민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안산소식!



안산 화정동 너비마을 문화재 탐방
〈오정각과 고송정지〉

이금순 기자



2021 안산 마을공동체 한마당
〈동동 동네문을 열어라〉

김하은 기자



2021 안산시 평생학습관 어울림한마당
〈평생학습 꽃이 피었습니다〉

이명옥 기자



마을어른들이 알려주는 환대와 나눔의
가치 〈마을어른에게 배운다〉

임은아 기자



이달의 인물 조민국 안산 그리너스FC 신임 감독

매월 안산과 관련된 인물을 선정해 시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산의 이슈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안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요경력 및 수상내역

1986, 1990 월드컵 국가대표

1999~2008.7. 고려대학교 축구부 감독

2001 삼성생명 내셔널리그 어워드 지도자상

2008.12.~2013.12. 울산현대미포조선돌고래축구단 감독

2013 신한은행 내셔널리그 최우수 지도자 감독상

2013.12.~2014.11. 울산현대 축구단 감독

2015.1.~2020.8. 청주대학교 축구부 감독

2020.9. 대전하나시티즌 감독대행

2021.11.~ 안산 그리너스FC 감독

“선수부터 코칭스태프까지 모두가 ‘원팀’이 되어 경기력을 갖춘 강한 팀을 만들겠다”

K리그2 안산 그리너스FC 팀의 2022시즌을 이끌 새 사령탑으로 조민국(58) 감독이 선임됐다. 새 시즌을 앞두고 팀 재정비로 분주한 조 감독을 지난 12월 15일 오후 와~스타디움 안에 있는 안산 그리너스FC 사무실에서 만났다. 감독으로 선임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된 그는 “일단 기대가 크고 팀 분위기가 좋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안산시민의 기대 속에서 2017년 창단한 안산 그리너스FC는 올해 K리그2에서 11승 10무 15패(승점 43)로 10개 팀 중 7위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조 감독은 “안산 그리너스FC 팀 자체가 젊은 팀이기에 경기를 위한 동기 유발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다”라며 “먼저 선수들의 경험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팀 분위기만 잘 살리면 점차 나아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수 개개인이 가진 역량을 천천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한 두 경기만을 보고 달리는 것이 아닌 전 시즌에 걸쳐 경기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많아 열정이 큰 만큼 부상 위험이 없도록 차근차근 경기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 감독은 새 코칭스태프와 골키퍼 코치 영입 등으

로 2022시즌을 위한 팀 재정비에 들어갔다. 특히 김정우, 신화용 등 선수 경력이 많은 스태프 중심으로 코치진을 구성하면서 관심을 높였다.

그는 “실력 있는 코칭스태프로 구성하기 위해 팀 합류를 적극 권했다. 경험치 높은 코치진이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팀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경기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모두가 ‘원팀’이 되어 천천히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안산 그리너스FC만의 강점으로 열심히 뛰는 점을 꼽으며 공격적인 팀 구성을 원하는 만큼 동계훈련을 시작으로 전투력 있는 강한 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기는 경험이 매우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감독은 30여 년 전 가정을 꾸리면서 안산에 정착했던 안산시민이기도 하다. 그는 “30여 년이 흐른 지금 다시 안산에 돌아오게 됐다”라며 “고향은 아니지만 낯설지 않고 친근한 안산에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한 팀을 만들겠다. 박수받고 떠날 수 있는 감독으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정례회 3차 본회의서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45건 의결



▲ 제27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사진은 이날 본회의 중 한 장면

안산시의회(의장 박은경)는 지난 12월 16일 열린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앞서 11월 22일부터 안건을 심의해온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등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처리 안건을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안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희) 소관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1건은 원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심사한 ‘안산시 시민음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도 원안 가결됐으며 ‘안산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환) 소관 ‘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아울러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태순)의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은 원안 가결됐고 ‘안산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이뤄졌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가 심사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됐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2022년도 예산은 시가 제출한 예산액에서 0.48% 삭감된 1조9천992억679만여 원으로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희)의 그간 활동 사항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으로 가결됐다.

박은경 의장은 폐회에 앞서 “정례회 회기 동안 2022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전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 제

시와 내실 있는 심사에 힘써주신 의원들과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건강한 웃음으로 다시 뭉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 경제활성화 특위, 활동 마무리 2020년 4월 구성 이후 활동사항 총평 및 대응 다짐 밝혀

안산시의회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희)가 지난 12월 2일 제6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의회 제2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태희 위원장을 비롯해 현옥순, 나정숙, 주미희, 추연호, 이경애 의원 등 특위 위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안전으로 올라온 ‘코로나19 극복 안산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0년 4월 구성된 특위는 활동 기간 중 총 다섯 차례의 특위 회의와 소속 위원들의 관련 시정 질문,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공유한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분야별 민생경제 실태 및 시 대응 현황을 검토하면서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펼쳤다.

특히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민생분야 주요 단체 26곳을 특

위 회의에 참여시켜 건의 사항을 듣는 한편 특위 차원의 주문사항을 시 소관 부서에 전달해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집중했으며, 그 결과 기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시의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위원들은 보고서 의결에 앞서 코로나19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위 활동을 끝맺음해야 한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향후 개별 의정활동에서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희 위원장은 “제한된 여건 속에서 특위의 활동 목표를 실현시키고자 위원들과 함께 힘써왔다”며 “활동기간이 올해 말까지라 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지만 이후에도 코로나 대응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산시의회 3개 상임위원회가 지난 11월 30일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중 현장 활동을 벌였다. 왼쪽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 활동 모습

소설 '상록수' 무대 '상록구'



'추운 겨울 녹이는 따뜻한 나눔 실천'

월피동새마을협의회, (새)사랑의나눔에서 후원받은 두부 전달

상록구 월피동새마을협의회는 지난 12월 7일 (새)사랑의나눔으로부터 기탁 받은 두부 300모를 통해 지역 나눔 활동을 펼쳤다. (새)사랑의나눔은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모인 나눔 공동체로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월피동새마을협의회는 기탁 받은 두부 300모를 관내 지역아동 복지센터 3곳과 안산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등에 전달했다.

김세영 월피동새마을협의회장은 “새마을회와 (새)사랑의나눔에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식료품을 통해 지역 복지기관에 따스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선희 월피동장은 “지역아동센터 등 후원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전해준 월피동새마을회와 (새)사랑의나눔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월피동 곳곳에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직접 만든 모과청과 함께 마음까지 훈훈한 겨울 보내세요”

안산시 부곡동통장협의회, 청문당표 수제 모과청 100병 나눔



상록구 부곡동통장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 경기도지정문화재 제94호이자 안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 청문당에서 모과 수확 및 수제 모과청 100병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청문당 안에 있는 300년 이상 된 모과나무에서 모과를 수확해 손수 모과청을 만들었다. 만들어진 수제 모과청은 관내 경로당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배부해 이웃 간의 따스한 사랑을 전달했다.

조정순 부곡동통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든 몸에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따끈따끈한 모과차를 드시면서 지역 어르신 등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기봉 부곡동장은 “모과청을 만들면서 사랑과 정성의 나눔 문화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 전파와 얼을 계승하는 기회가 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며 “모든 주민이 함께 따스한 벚꽃마을 부곡동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원순환의 시작'

와동행정복지센터, 2021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 '장려상'

단원구 와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월 29일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후원한 '2021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공모전'에서 단독주택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대상 기초지자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3개 부문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과 관련해 자원순환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 운영 중인 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와동행정복지센터는 와동새마을회 봉사활동으로 아이스팩 수거, 세척, 소독 등 활동을 한 뒤 정육점, 수산마켓, 김치공장 등 지역 업체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아이스팩 재사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에도 모범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태균 와동장은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수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가 지킨 나의 양심 '우리동네 청결 지킴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위한 디자인으로 마을에 '쾌적함'을 입히다



단원구 호수동행정복지센터는 최근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구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각심 제고용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했다.

새로 설치한 경고표지판은 쓰레기 무단투기 시 과태료 부과 고지 등 무거운 내용을 벗어나 친근하고 부드러운 디자인 4종으로 제작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특히 경고표지판에 활용된 문구는 호수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동 직원 전체가 협업한 사례로도 의미를 더했다.

정소우 호수동장은 "생활 민원 현황 파악을 위해 관내 순찰을 자주하는 편인데 항상 비슷한 장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것이 안타까웠다"며 "이번 표지판 설치로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년을 맞이하며! 임인년(壬寅年), 안산시 범띠 시민들 여기 모여라!

어흥! 저는 자칭 타칭(?) 인간 호랑이, 호랑단 24세 백재원입니다! 범띠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넘쳐나서 제 스스로도 전생에 호랑이가 아니었을까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애정 하는 이유는 첫째로 다른 동물은 가질 수 없는 카리스마와 고고한 매력! 둘째는 자세히 보면 너무 아름다운 무늬와 눈동자! 셋째는 대한민국 대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범띠의 해를 맞아 이런 이벤트도 진행하니 정말 행복해요~ 새해에는 호랑이처럼 늠름하고 무게감 있는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범띠들 파이팅! 호랑해요♥

백재원(단원구 초지동)

범의 기운으로 코로나19가 무서워 도망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국민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범이 설쳤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가족도 편안하지~!

최은영(상록구 사동)

가족 모두가 건강한 한 해, 이웃과 화목한 한 해, 안산과 안산을 넘어 온 나라와 인류가 화합하는 한 해가 되는데 작은 보탬이 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불꽃의 처음이자 마지막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처럼 용감하면서도 위엄을 가진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석(상록구 해양동)

2022년엔 케케묵은 목표들을 이룰 겁니다. 5.5kg 감량, 운전면허 취득 등등! 2021년보다 더 빛나는 안산시민이 되겠습니다.

김혜빈(상록구 해양동)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얼 해도 잘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유난히 지치고 힘들었던 2021년. 2022년은 나의 해! 호랑이 기운으로 힘차고 즐겁게 잘 지내보자~!!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더, 더, 더 행복하길^^♥

이아름(단원구 호수동)

2022년에는 원하는 자격증을 다고 취득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안산시민과 우리 가족 5명이 마스크를 벗고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최용찬(상록구 이동)

2022년은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생기는 해라 무척 설레는 해예요. 때론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따뜻한 사람들에게 기대면서 변화들을 잘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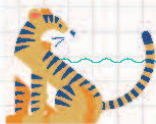
김송미(단원구 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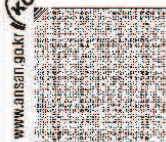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우리 딸 초등학교 입학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 역할 잘하고 2022년부터는 주말부부에서 일상부부로 돌아오니 서로 아껴주고 잘 살겠습니다!

최희정(단원구 선부3동)

코로나19로 예상치 않게 한국에 들어왔지만 우연히 좋은 장소에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해에는 이 모든 조건을 등에 업고 날아가겠습니다.

한승목(상록구 본오3동)





새해가 다가오네요. 식구 중 저랑 신랑, 막내 공주, 저희 아버지 모두 범띠입니다. 범띠 풍년이네요. 새해엔 부모님 건강 나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가 얼른 없어져서 신랑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딸들도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열심히 다녀서 정직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정숙(상록구 해양동)

2022년에 49세가 됩니다. 벌써 40대 마지막이고 곧 50세 시작이라고 생각하니 지금까지는 앞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황인호(단원구 중앙동)

호랑이처럼 비범하고 강한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2021년의 안 좋았던 기억들은 모두 잊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밀어냄 삼아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문하은(단원구 호수동)

밀림의 왕 호랑이처럼 다가오는 2022년! 지치지 않고 도전할 것이며 하고자 했던 일들 하나하나 성취해나가고자 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당차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가장 중요한 건강도 챙기기~!

손현지(단원구 선부3동)

사동에서 자판기 사업하는 갑인년(甲寅年)에 태어난 김현정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에 더욱 정진하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김현정(상록구 해양동)

일도 아이도 잘 지켜내는 멋진 워킹맘이 되고 싶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가 외롭지 않게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가득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김다정(상록구 사동)



2022년 임인년에는 호랑이 기운 듬뿍 받아 듬직하고 활력 넘치는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안산시 호랑이 띠 여러분들도 모두 대박나길 바랍니다!! (어흥)

이예은(단원구 중앙동)

새해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주말농장을 해서 안전한 먹거리로 건강한 삶을 살아볼까 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실천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태영(단원구 초지동)

2022년에는 환갑을 맞아 금연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해서 딸아이들 결혼시키고 손주들 태어나면 같이 놀아주려고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희(상록구 사동)

하얀 소의 해 2021년, 우리 하얀 마스크를 쓴 채 소처럼 열심히 각자 삶의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느라 고생 많았어요. 2022년 검은 범의 해에는 우리들 모두 힘차고 당당하게 세상을 누벼요! 세상에 첫 발을 내딛고 있는 98호랑이 파이팅!♥

서희정(단원구 호수동)

5년의 여정 끝에 2022년 2월 대학 졸업 예정입니다. 아직 확실한 진로를 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꼭 취업에 성공하도록 도전해 볼게요!!

차유진(단원구 호수동)

우리 가족 고향은 모두 안산

최규완(단원구 초지동) / 나는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해인 1988년 원곡초등학교를 졸업했다. 태어나서 유년 시절 살던 곳은 부산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직장이 있던 안산 반월공단으로 이사를 오게 됐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은 안산에서 살고 계신다. 나는 관산중학교를 졸업한 후 구미에 있는 금오공고와 금오공대에 진학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직업군인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안산은 나에게 명절에나 오는 곳이었다. 그러다 2019년, 21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정착할 곳을 찾다가 부모님이 계신 안산으로 다시 오게 됐다. 새롭게 취직한 회사가 있는 판교와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안산 외에 끌리는 곳이 없었다.

그렇게 다시 오게 된 안산이지만 짧은 학창 시절을 보냈기에 친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연락이 소원했던 관계도 있고 설령 연락이 닿은 친구도 지금은 안산을 떠나 타지역에서 살고 있어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우리 아이들은 가급적 한 지역에서 정착해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고 싶다.

물론 안산이 우리 가족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다. 하지만 안산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예정이다. 첫째 아이는 안산에 정착한 이후인 2020년에 관산초등학교를 졸업해 지금은 원곡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둘째 아이는 현재 관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우리 삼부자 모두 안산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안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할 예정이니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 아내도 안산에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안산에서 살고 있고 안산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를 두고 있으니 안산을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가족 모두 또 다른 고향인 안산에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안산톡톡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락처, 주소, 글과 관련된 사진을 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면 5만원 상당의 소정의 원고료를 다온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독자투고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분량 A4용지 1/2, 관련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 36개월 이내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150자 내외, 아기사진

나비잠 - 우리 아이를 소개해요^^



아기 이름 : 이해나(여)



출생년월 : 2021년 1월



해나야! 엄마 아빠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

엄마 아빠 둘만 있을 때랑은 또 너무 다른 행복이라서 늘 새롭고 신기한 일뿐이야.
앞으로도 잘 웃고 잘 먹고 잘 놀고 잘 울고♥ 엄마 아빠 품속에서 건강하고 밝고
행복하게 지내면서 예쁘게 크자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 해나야♥

강태선(단원구 선부1동)



아기 이름 : 김민서(여)



출생년월 : 2018년 12월

우리 예쁜 딸 민서야♥ 코로나로 집에만 있다가 이제 유치원에 보낼 생각을 하니
엄마가 더 떨리고 걱정되는데 너는 밝게 웃으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 모습을 보니 기특하기도 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생각도
하게 돼. 곧 만 3살이 되는 우리 딸 민서. 혼자 쑥쑥 자라는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 12월 너의 생일 많이 축하해. 행복이 가득한 12월이 되자. 사랑해 민서야♥

박경혜(단원구 중앙동)



아기 이름 : 한영진(남)



출생년월 : 2018년 12월



엄마 아빠의 전부인 둘째 영진아♥ 12월 중순이 되면 네가 벌써 세 돌을 맞이하는구나.
시간 참 빠르다. 올해도 아프지 않고 부족한 엄마 아빠 곁에서 잘 커줘서 정말 고마워.
가끔은 형과 티격태격하며 징징거리는 모습에 엄마 아빠는 지칠 때도 있지만 너의 미소
와 웃음소리에 지친 마음이 녹아내리고 힘이 난단다. 앞으로도 엄마 아빠 형아 곁에서 재
미있게 잘 놀면서 그 예쁜 웃음 자주 보여줘. 늘 형을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은 너
를 더 많이 사랑하고 아낀단다. 4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정말 많이 사랑해♥

손아름(단원구 초지동)



아동



청소년



성인



이달의 주제 : 이 겨울... 글 따먹으며 책 읽기

아동

빨강 연필

저자 신수현 출판사 비룡소

학교에 가기 싫었던 날 민호의 책상 위에는 '빨강 연필'이 놓여 있었다. 글 짓기를 하던 민호는 '빨강 연필'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종이 위를 능수능란하게 움직이며 글을 멋들어서 써내는 '빨강 연필'을 갖게 되면서 비밀과 거짓말 사이에서 고민하는 민호의 특별하고 몽글한 성장 일기를 들여다보자.

청소년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저자 이꽃님 출판사 문학동네

가장 따뜻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에서 폭력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운, 타이밍, 행운의 여신 혹은 운명의 장난이라 불리는 존재는 뜻밖의 시니컬한 말투로 툭툭거리면서도 시종일관 애정 어린 눈으로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 행운이 간절한 아이들을 위해 언제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이 특별한 목소리는 곧 작가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성인

불편한 편의점

저자 김효연 출판사 나무열의자

서울역에서 노숙인 생활을 하던 '독고'라는 남자가 어느 날 한 여성의 지갑을 주워준 인연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이 사내는 과연 손님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의외로 그는 일을 꽤 잘 해낼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묘하게 사로잡으면서 편의점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일꾼이 되어간다.

안산시 스마트도서관에 새로운 책이 왔어요!



운영시간 : 연중무휴 24시간

장 소 : 상록수역, 현대앞역, 중앙역, 초지역, 상록구청, 단원구청 등 6개소

이용대상 : 안산시 도서관회원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권수 및 기간 : 2권 10일(연체 시 5일간 대출 정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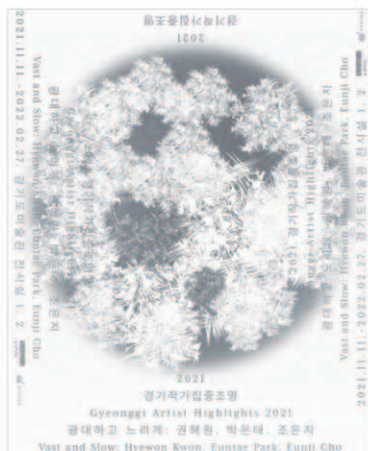
반납방법 : 대출한 스마트도서관 기기로 반납(타 기기로 반납 불가)

안산시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열린 공간 ▶ 공지사항에서 신간도서를 비롯한 도서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미술관-전시

2021 경기작가집중조명 <광대하고 느리게>



기간 : '21.11.11.(목)~'22.2.27.(일)
장소 :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1, 2
참여작가 : 권혜원, 박은태, 조은지
관람료 : 무료

조각음계



기간 : '21.12.2.(목)~'22.3.20.(일)
장소 : 경기도미술관 프로젝트 갤러리
참여작가 : 김채린, 서혜민
관람료 : 무료

안산문화재단-공연,채형

미디어스테이지 <김홍도>

일시 : '22.1.20.(목) ~ '22.2.27.(일)
회차 : 1일 6회(10시, 11시, 13시30분,
14시30분, 15시30분, 16시30분)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 단원 김홍도의 삶과 그림의 '미디어
아트'로의 재구성
관람료 : 1만원

2022 경기청소년 공연예술 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일시 : '22.1.18.(화)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경기청소년 공연예술 경연대회>
일시 : '22.1.20.(목)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경기틴즈뮤지컬 쇼케이스>
일시 : '22.1.23.(일)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안산시립국악단 신년음악회

일시 : '22.1.27.(목) 19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관람료 : R석 1만 2천원 / S석 1만원

안산문화재단-전시

<표암과 단원> 영인본 대체전시



기간 : 상설전시(월요일 휴관)
운영시간 : 10~18시(17시 입장마감)
장소 : 단원미술관 3관 2층
관람료 : 무료

생생화화 生生化化 안산



기간 : '21.12.8.(수)~'22.2.27.(일)
(월요일 휴관)
운영시간 : 10~18시(17시 입장마감)
장소 : 단원미술관 1, 2관
내용 : 경기도 시각예술 성과발표展
관람료 : 2천원

<전시설명> 예술가 혹은 작가는 다양한 시각과 사고방식으로 굳이 들어내야 드러나는 것들을 파고들어 하나의 작품으로써 의미 있게 만드는 존재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대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작가에게는 예술적 대상화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는 10명의 작가가 들어내서, 드러나는 새로운 시각과 세계를 현시적 전경으로 담아냈다.

※ 대관 공연 등 더 많은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 www.ansanart.com
문의전화 080-481-4000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 gmoma.ggcf.kr
문의전화 031-481-7000

2022년도 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안내

- 신청기간** '22. 1. 10. ~ 1. 21.
- 주요혜택** 경기도 출신의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
(신입생 포함)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gbfn.co.kr)
- 선발기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기준
다득점 순위 선발
- 문 의** 경기푸른미래관(02-996-8505, 02-998-1003)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3개월로 단축됩니다!

누가?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난 분(18세 이상)
12.10.~12.12. 사이 질병관리청 개별 문자 수신자
어떻게?

- ① 온라인 ncvr.kdca.go.kr(본인 및 대리인 예약가능)
- ② 전화 ☎1339,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콜센터
- ③ 방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언제? 예약 12.13.(월) 부터 / 접종 12.15.(수) 부터

**60세 이상은 예약 없이
의료기관 당일방문·접종 가능합니다!**

백신 추가접종안내

대상군	간격 조정 전	간격 조정 후
■ 60세 이상 고령층 ■ 기저질환자(18~59세) ■ 요양병원,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	기본접종 완료 3개월 이후
■ 18~59세 일반국민 ■ 우선접종 작업군 (경찰, 항공승무원 등)	기본접종 완료 5개월 이후	
■ 안센백신 접종자 ■ 면역저하자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현행 유지)	

수도계량기 동파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수도계량기 이렇게 관리합시다

동파방지 요령



수도계량기 보온상태
미리 점검하기



부재중이나 휴관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게 하기

동결시 조치요령

계량기 양 옆 배관 및 밸브부분에 수건을 감고
미지근한 물에서 따뜻한 물로 서서히 부어 녹이기

자재신청안내 계량기함 뚜껑 : 유상 설치
훼손된 보온재(스티로폼 등) : 무상 설치

문 의 안산시 수도시설과 (주간)031-481-2037, 3673
(야간)031-481-3715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 적십자회비

2022년도 적십자회비 모금 안내

모금기간 '21. 12. 1. ~ '22. 11. 30.
(집중모금 : '21. 12. 1. ~ '22. 4. 30.)

납부방법 가상계좌, ARS, 금융기관(CD/ATM, 공과금수납기),
인터넷, 휴대폰결제(QR코드) 등

후원계좌 농협 143-01-078870
(예금주 :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문 의 대한적십자사(060-700-1200)



1월 독자 참여 퀴즈

<안산특독>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으신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하나

지난 11월 말 개소한 ○○마트 청년몰은 2021년 3월 문을 연 신안코아 청년몰에 이은 안산시 청년몰 2호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몰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다농 ② 하이 ③ 롯데

두

안산시 대부도 갯벌은 2018년 10월 경기도 최초로 ○○습지로 등록되었습니다. ○○○협약은 국제습지보호조약으로 습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① 람세스 ② 람사르 ③ 람바다

퀴즈
응모
방법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디지털 업서로 연결됩니다.
정답을 찾아 제출해주세요. 응모자 중 20명을 선정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무작위 추첨 후 개별 문자 발송 (3개월 이내 중복 당첨 불가함)
※ 당첨자는 www.ansantalktalk.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 : 1월 26일까지 / 12월 호 정답 : ①, ②**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소개합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안내

- ◆ 운영시간 : 평일 9~18시
- ◆ 장 소 : 안산시청 민원동 2층
- ◆ 이용대상 : 취업 희망 구직자
- ◆ 업무내용 :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 ◆ 문 의 : 031-481-2919

안산시 일자리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1. 화상면접체험관 운영
2. 특성화고 직업상담사 운영
3. 「기업생생정보통」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
4. 「면접복장 무료대여 서비스」 청년취업 훈련옷장 운영
5. 청년 및 계층별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6.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 상담 창구 운영

안산시 동 행정복지센터 일자리상담창구 운영

동명	문의전화	동명	문의전화
일동	031-481-5680	와동	031-481-6085
이동	031-481-5751	고잔동	031-481-6332
사동	031-481-5722	중앙동	031-481-6511
사이동	031-481-5813	호수동	031-481-6532
해양동	031-481-5717	원곡동	031-481-6691
본오1동	031-481-5405	신길동	031-481-6672
본오2동	031-481-5417	백운동	031-481-6778
본오3동	031-481-5687	초지동	031-481-6824
부곡동	031-481-5728	선부1동	031-481-6852
월피동	031-481-5416	선부2동	031-481-6910
성포동	031-481-5714	선부3동	031-481-6929
반월동	031-481-5821	대부동	031-481-6576
안산동	031-481-5684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내 일(JOB)'을 찾아드립니다.

구분	행사명	행사규모	장소	문의
1주차(1/6)	목요일에 희망잡(Job)고(Go)	구인업체 3개/구직자 20명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화상면접장	031-481-2923
2주차(1/13)	상설면접	구인업체 1~3개/구직자 10명		031-481-2930
3주차(1/20)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개/구직자 20명		031-481-2919
4주차(1/27)	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5개/구직자 20명		
수시	상설면접	업체 요청 시 수시 진행		031-481-2880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한빛방송 (11월 28일)
안산시민과 함께하는
300인 토크콘서트



SBS (12월 7일)
생방송투데이
대부도 관광홍보



MBN (12월 14일)
생생정보마당
안산시 소개



TV조선 (12월 24일)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
안산시편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ISCDC) 주관

안산시 국제안전도시 인증 획득!

